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순창에 등지

사업비 100억원 투입 시설 건립... 농업경쟁력 제고 기대

전북도와 순창군은 13일, FTA시대에 대응해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립한 순창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황숙주 순창군수, 최영일 전라북도 의원, 김종섭 순창군회의회장, 전주대학교 김진수 산학협력단장,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정우진 전남대학교 한국형 친환경재배기술개발연구단장을 포함해 농업인단체, 친환경농업 관련 기업인, 지역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 관련 담당자, 순창군 농업 주요단체 및 지역농가

등 30여개 기관단체 등에서 300여 명이 참석했다.

순창 친환경농업연구센터는 전북 지역의 친환경농업을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친환경농업의 연구 개발과 교육, 보급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총 100억원(국비 50억, 도비 15억, 군비 35억)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복합연구동, 종합연구실용화센터, 유기농실증온실 등 3개동으로 조성됐으며, 복합연구동(연면적 2,102㎡)은 지상 2층 규모로 토양환경 및 잔류농약분석실, 미생물연구실 등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연구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종합연구실용화센터(연면적 498㎡)는 지상 1층 규모로 젤라틴키티닌분해 미생물배양실, BM활성수 생산플랜트, 토착미생물발효배양실, 천연추출물 생산플랜트 시설을 갖췄다.

유기농실증온실(1,208㎡)은 지역특산물 작물을 친환경유기농법으로 실증 재배하는 첨단온실을 갖추고 있다.

순창군은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통해 친환경 유기농 관련 농자재와 농법을 개발하고, 관련 교육을 운영해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추, 콩 등 지역특성에 맞는 유기농자를 발굴육종 연구 등 실질적인 산학관연 연구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소식에 이어 센터 내의 연구 시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설별 설명회가 이어졌고 연구센터 개소식 기념 ICT 융복합 농생명 4차 산업의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미래농업 포럼도 열렸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순창군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1,268ha로 우리도 전체 인증면적 6,799ha의 18.7%를 차지하고 있다”며 “순창군과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탄실한 기반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솔레어 호텔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에 개최된 아세안 기업투자자 및(ABIS)에 특별연설자로 참석해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협력 비전으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文 “아세안 협력기금 2년내 두 배 확대”

4대 중점 협력분야 제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대(對) 아세안 협력기금 수준을 2년 내에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400만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 기업투자자 및(ABIS)·ASEAN Business Investment Summit’ 기조연설에서 “한·아세안 협력기금 출연 규모를 2019년까지 연간 1400만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메콩 협력기금은 현재의 세 배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협력기금으로 자유무역의 활용도를 높여겠다”며 “2020년까지 상호 교역 규모 20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ABIS 특별연설자로 참석한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미래공동체의 목표로 사람중심의 상생번영을 통한 평화공동체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이른바 ‘3P’(People·Prosperity·Peace) 비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이 추구하는 역내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4대 중점 협력분야를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교통·에너지·수자원 관리·스마트 정보통신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교통분야에 대해 “한국은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의 메트로를 건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경전철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수준의 서울시 지하철은 한국이 경제개발과정에서 겪은 대도시 교통 문제의 해결책이었다. 한국은 아세안 대도시의 과밀화와 교통문제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아세안 출범 50주년, ASEAN+3 창설 20주년, 한-아세안 FTA 체결 10주년의 뜻 깊은 해”라며 “저는 이 행사에 있어서 아세안 정상들과도 제 구상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제 지도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는 필수적”이라며 “한국 정부는 경제인 여러분들의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고교 무상급식 예산 19억원 편성해야”

김성곤 군산시의회 의원(사진)이 13일, 내년 예산안에 고교 무상급식예산 편성하라고 군산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지만, 고등학생 6099명은 학교 급식비로 매달 10만 원씩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 내 전체 고등학생은 8989명으로 이 가운데 면 단위 소재 학교나 저소득층 학생 2692명(29.3%)은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와 세종시가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 전북 김제시와 남원시도 자체 예산으로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근 익산시도 고교 무상급식예산 21억원 가운데 18억원을 자체부담하고 나머지 15%는 전북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제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시와 군산시만 고교 무상급식에서 소외되게 됐다. 김 의원은 “군산시 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총 19억원”이라며 “24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2018년 예산안 심의 기간에 고교 무상급식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광관 기자

친환경 관람문화 확산 ‘그린스포츠’

새만금지방환경청, 14일 KCC 흥경기서 캠페인 전개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법정)은 11월 14일 오후 7시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KCC 이지스 흥경기에서 대중교통 이용과 쓰레기 분리배출 등 친환경 관람문화 확산을 위한 ‘그린스포츠’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환경청, 전주 KCC 이지스와 더불어 전북녹색기업협의회, (사)전라북도 강살리기 추진단, SNS 온라인 홍보단 등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여러 분야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환경행사로 경기장 내 친환경 관람문화 확산과 함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일상생활 속 친환경생활 실천사례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실천방법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환경청은 관람객의 친환경생활 실천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기장 안에서는 작전타임, 하프타임 등을 활용해 친환경생활을 소개하는 음악과 홍보영상을 상영하며, 환경퀴즈 이벤트를 진행하여 당첨된 관람객에게는 태블릿 PC, 블루투스 키보드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경기장 밖에서는 경기 시작 2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 관람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친환경생활 관련 O/X 다트게임, 낚시게임 등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하고 홍보 리플릿도 배포한다.

또한, 현장에서 중·고, 대학생 등 ‘친환경생활 홍보단’ 모집과 함께 직접 실천한 친환경 실천사례 등을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바이럴(Viral)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분야에 환경의 가치를 더한다면 생활 속 친환경생활 습관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도내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농구팬들이 대중교통 이용, 쓰레기 분리배출 등 ‘그린스포츠’ 실천에 동참하고, 나아가 일상 생활속에서도 친환경생활을 적극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이상민 기자

전북 축산물브랜드 페스티벌 15일 개최

전주종합경기장 주차장 일원
도내 한우 등 21개 업체 참여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 판매

등심과 극거리, 불고기, 장조림 등은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또 각종 한우·한돈·닭·오리·유가공품 등을 전국 평균가 대비 30% 이상 할인하는 판매 행사를 실시하는 한편 삼척미 식량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판매촉진을 위해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1만원권 상품권을 선착순 300명에게 증정하고, 한우·한돈·가공품 20세트를 1일 4회, 1회당 5세트를 경품추첨을 통해 증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오는 16일 축산물 사랑 한마당에서는 초대 가수 공연과 함께 도민 노래자랑이 펼쳐지며, 노래자랑 시상으로 대상 40만원, 금상 30만원, 은상 20만원, 동상 10만원, 인기상 10만원 등 명품한우 선물세트를 증정한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전북 브랜드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도내 축산물의 소비 붐이 일어나 소비촉진으로 이어져 축산물 가격 안정 및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